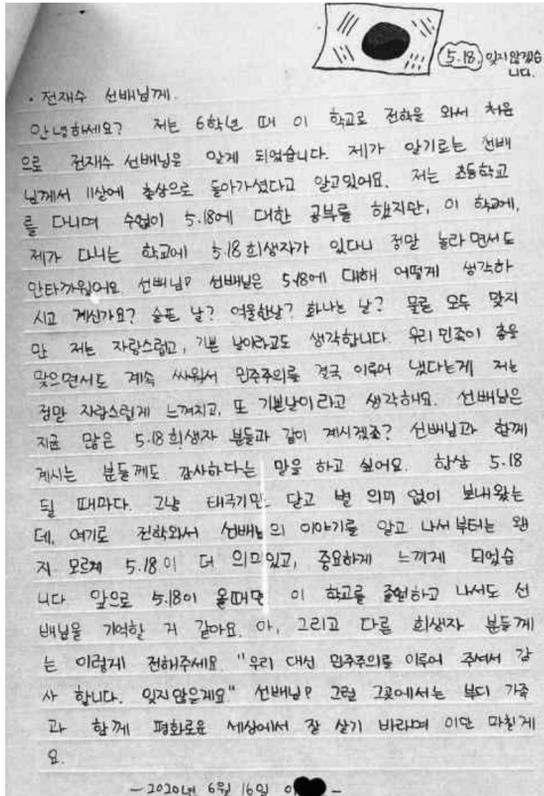


수년간 쓴 고사리 손편지 수백통, 열사의 묘지에 놓이다

어린이 날 열린 전재수 열사 영정패 제막식...모교 광주효덕초 학생들이 쓴 편지 유족에 전달

“충 맛고 얼마나 아팠나요...송고한 희생 잊지 않을게요” 초등생들 매년 편지 써 “민주주의 위한 헌신 고마워요” “5월의 진실 꼭 밝혀야” 등 담겨 유족들 눈시울 학교에선 매년 5·18 추모 행사...엽서·추모리본 달기·글 남기기 등 정신 계승



효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선배인 고 전재수군을 기리며 쓴 편지.

“전재수 선배님! 충 맛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효덕초 5학년생이 41년 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전재수(당시 효덕초 4년)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전 군은 지난 1980년 5월, 또래 친구들과 마을 앞산에서 놀다 계엄군의 무차별적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효덕초 학생들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군에게 편지를 쓰며 기억하고 추모해왔다. 학생들의 편지는 학교 내 추모관에 차곡차곡 쌓였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만 수백통에 이른다.
 어린 후배들의 이런 편지들이 5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그동안 무궁화로 대체됐던 고(故) 전재수 군의 묘비 사진을 바꾸는 날에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전 군 가족들은 1980년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전 군의 ‘잃어버린 열광’을 41년 만에 발견, 이날 묘비 영정패를 교체하는 행사를 열었다.
 유족들은 이날 전군 후배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빼빼빼를 쓴 손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유족들도 전군의 후배들이 전군을 기리며 고사리 손으로 손수 써내린 손 편지를 전달받아 유족들의 눈시울은 더 붉어지게 했다.
 편지 곳곳에는 전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5학년생은 “학교에서 선배님 이름과 이야기가 많이 기억되고 있어요. 선배님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라고 썼다. 다른 초등학생 후배는 “잘못없는 11살 아이를 희생시킨 군인이 너무 밉네요”라고 썼다. “모든 사람들이 선배님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적었다.

6학년생은 “초등학생을 죽이다니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때 만약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가정을 꾸려 아이들과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요”라고 썼다. 그는 또 “우리 광주시민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국가가 됐습니다”고 했다.
 다른 5학년생은 “희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군 뿐 아니라 1980년 당시 광주의 모든 분들에게 “가족을 잃고 희생당하셨지만 봉사하고 헌혈,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고 감탄하고 행복했습니다”라고 쓴 초등학생도 있었다.
 편지에는 밝혀지지 않은 5월의 진실에 대한 당부도 포함돼 있었다.
 6학년생이 쓴 편지에는 “누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고 희생된 사람들이 묻힌 곳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전두환씨는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라고 편지에 담았다.
 효덕초교 학생들은 전군과 5·18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한 편지에는 “짧디 짧은 편지에 제마음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80년의 광주, 잊지 않을게요. 5·18 잊지 않겠습니다”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도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과 전재수 선배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효덕초는 1989년에 전군에게 명예졸업장 수여하고 해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전재수 학생을 기억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효덕초는 올해도 전군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편지·엽서, 추모리본달기, 기념 글 남기기 등 5·18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고(故) 전재수 묘비제막식에서 형 재룡씨가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제막식에 앞서 묘비에는 효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재수 군에게 보낸 편지들도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에 더 엄격해진 법원

유·무죄 판단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 형량 2배 이상 늘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수거책’이라도 자신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가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2배 이상 올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3415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8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직원인 듯 속여 피해자들에게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엄벌 분위기에 도, ‘수거책’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A씨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 가법지 않고 어떠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지난해 11월 12일 광주시 서구 도로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1170만원을 받아 가로챈 등 수습여차래에 걸쳐 4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달책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도 수습여차래에 걸쳐 3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와 C(20)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했을 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C씨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극단적 선택 함께 하자” 글 올린 30대 적발

전남경찰, 불법 유해 정보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전남경찰이 온라인상에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자라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올린 혐의(자살예방법 위반)로 A(37)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SNS에 “가치(같이) 가실분 구합니다. 장난사절이고 진실되게 가실분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 요청하는 한편,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반복돼 핏김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면서 “소중한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불안한 금융상품
안전성없는 주식투자**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1억 투자시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1억투자시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